

# 죽음, 담대하게 마주하다

오늘도 어김없이 겁에 질려있는 나를 본다. 살아서도 두렵고, 죽어서도 두려운 하루. ‘살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명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내 인생 최대의 명제였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래도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을 되뇌며 살았다. 그래야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지금, 나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이 하루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생각은 복잡한데 답은 못 내겠다.

인생은 한 권의 노트와 같다고 했다. 그 노트에 어떻게든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 한 줄이라도 더 써놓게 하고, 한 줄만 더 읽게 하며, 한 페이지이지만 페이지를 계속 추가한다. 쓰고 또 쓰며 그 노트를 완성해서 어디엔가 적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 때의 나는 일기장을 들고 도망갈 거라면서 몇 장씩 쓰고 또 쓰며 다음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했다. 아니. 지금의 나는 또 어떤가? 여전히 겁이 많다. 이렇게 쓰니 오늘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며 생각하다보면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다. 나는 겁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마주한 것처럼 두려운 것도 없는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두렵다고 말하고 용기를 내보자 다짐한다. 담대한 겁쟁이가 되고 싶다. 담대한 겁쟁이. 겁을 가지고 사는 것도 분명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 겁이 때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처럼 작용하기도 했을 때가 있었다. 지금의 나라면 다르다. 어떻게 겁쟁이로 살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며 살고 싶다. 어떤 날은 겁 없이, 어떤 날은 겁 없이.

나는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 간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이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죽음은 반드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다가오게 된다. 죽음을 향한 발걸음. 나는 그 길을 담담히 걷고 싶었다. 삶 자체가 불행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했다. 살고 싶어서 난 최선을 다했다. 살기 위해서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더는 아픔 따위에 지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는 내가 믿던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를 위한 삶!’

그 삶의 방식이 바로 담대함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 이 순간을 살고 있기에 행복이라는 걸 느끼며 살게 되어 있다. 행복하다. 담대함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끼며 행복함을 느낀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해했다.

담대함은 나에게 지금 있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 주고 있다. 모든 삶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다. 삶을 감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많은 공부와 많은 노력도 물론 필요하다. 그 모든 노력은 삶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한다. 담대함은 삶의 가치를 바꾸는 요소다. 담대한 죽음은 의미도 있다. 담대한 죽음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다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삶은 이처럼 의미 없고 따분하기만 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지 않은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가족은 죽음의 과정도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기를 소망한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쓰는 책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자신의 죽음 앞에 담담하게 쓰는 책. 삶을 사랑하는 그들의 태도가 내 가슴을 파고든다.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자리에 서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한 번 태어나고 난 뒤에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리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책장을 덮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내 인생이 오늘날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날이 지나도 여전히 나의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내 인생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에 죽음은 너무도 두렵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어쩌면 그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요소이기에 그렇다.

담대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들과 함께 죽음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전 연습' 과정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사전 장례식을 진행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사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장례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그들 앞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죽음 앞에서는 삶을 향한 열정도 열정이지만, 누구도 남기지 않을 것들에 더 온 마음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다. 나에게 죽음이란 삶의 연장선이 아닌 한순간에 끝나 버리는 사건과 같은 것이다. 죽음의 순간을 함께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것들에 더 마음이 쓰인다. 그들이 나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은 하나도 없다면 내게도 남은 한순간을 조금 더 열심히 보내고 싶다. 그리고 그들은 더 멋지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 나를 추억할 것이다. 그것들을 보며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삶과 죽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삶이 있으면 죽음도 존재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 있게 죽자. 죽음이란 삶이라는 여행의 한 과정의 마무리 지점일 뿐이다. 죽음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오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사전 연습'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는 충분한 것

같다.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씩 잡아가는 시간일테니 말이다. '잘 죽는 것'은 결국 '잘 사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읽다 보니, 내가 과연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이 깊어진다. 답대한 죽음. 내가 겪으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리고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들려주는 이야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은 곧 삶으로 가는 길과 다름없다는 그의 말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나에게 던진 말이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질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다. 어쨌든, 나의 길을 간다. 지금의 내 위치와 상태에서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나는 항상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다.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나는 지금도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은 조금 더 생기롭게 살아질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여행길이며, 죽어가는 것부터, 떠날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살아 있는 여행길이다. 살아서 여행길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여정이라 생각하고,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이다. 삶과 죽음은 함께하는 여정이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맞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그에 맞서 싸우기보다 같이 여행길을 떠나자. 여행길이 힘들다 해도 여행길 자체를 함께하고, 그 여행길에서의 순간들을, 소중함과 행복을 찾아가자. 죽음을 받아들이며 여행길 위에서 행복을 찾아가자. 떠나는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길 위에서 삶과 죽음을 배우고, 함께하는 여행자들을 만날 것이며, 여행이 끝난 후 여행길 위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여행길 위에서 배운 행복과 지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다. 죽음은 생명의 한 형태이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은 우리 삶을 정의하려고 한다. 죽음은 우리가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죽음은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죽음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삶에서 죽음으로 바뀌는 것. 그 순간이 오면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죽음이 나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여행자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행자는 삶을 되돌아본다. 그는 더 지혜롭고, 현명하며, 단단한 사람이 된다. 여행길 위에서 만나는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할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성장하고야 만다.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간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 여행지는 우리가 매일 선택할 수 있다. 매일 걷는 길 위에서 내가 걷는 삶의 자세는 내가 선택하는 나의 삶의 자세다. 여행에서 배운 현재 나의 의미를 찾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은 내가 여행하는 것이고, 나는 삶을 여행하는 여행자다.

삶은 고통과 죽음은 그 자체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고통을 겪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진실한 순간이며, 죽음과 함께 우리는 삶의 진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죽음으로 삶을 돌이켜 보는 순간만이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삶을 돌아봄으로써 또 다른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죽음 없이 삶은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죽음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죽음은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한다. 삶이 가치 있어지고 충만해진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오늘도 담대하게 글을 쓴다. 그 누구도 내 글과 그 시간 속에 존재하진 않는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쓰며 나는 내가 깨달은 그 진실을 나만의 언어로 기록한다. 기록한 그 진실은 바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 죽음은 그 자체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삶의 진리인 것이다. 언젠가의 나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글쓰기를 한다. 그래서 고통이 있던 자리로 나에게 주어진 길고 먼 여행을 떠난다. 그 여정이 끝나고 도착한 곳에서 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삶을 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삶의 여행자로서 깨달은 바를 세상 사람들과 나눈다. 나의 삶을 세상과 공유하는 여행자인 것이다. 죽음이라는 실존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오기에, 그리고 그 죽음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려면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을 힘들어하는 것 같다. 죽음을 마주하고 삶의 소중한 것을 알아갔다는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도 하다.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낸 것이 있다면 삶의 진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죽음은 우리를 잠시 떠나가는 것뿐이며,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의 진실을 깨달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삶을 정리해보려는 생경한 시도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삶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행자로서 죽음은 결코 쓸쓸하지 않다. 그 자리에 가서야 죽어야 할 이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때로는 비극적인지, 슬픔의 감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이 나의 슬픔을 위로한다. 인간은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 안의 것들 속에서 의미를 끌어내어 의미 없는 것들과 함께 의미 있을 수 있도록. 나는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도록 허락 되어지는 것이기를 바란다. 그러니 당신이 삶을 여행하는 여행자라면. 당신은 죽음 앞에 삶을 여행하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글을 통해 사람들이 위안과 즐거움과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여행을 떠나보면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나를 만날 수는 없다. 나는 오직 나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나를 보는 여행이지만, 동시에 나를 만나는 여행인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 보통은 그 상실에 깊이가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담담할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할 것이다. 죽음을 담담하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이 없는 삶이란 없는 것이다.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결국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에 삶과 죽음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 않을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과 고통과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만 있다면, 또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모든 생각의 초점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된다. 담대한 죽음은 나를 변화시킨 큰 힘이였다. 죽음은,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무섭고 아프다. 죽음을 기억함이 생명의 의미가 된다. 이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깊게 깨닫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죽음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삶이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오래 살아서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에서 많은 자극을 받는다. 그들의 지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다. 그 지혜는 오래전부터 내 옆에 가까이 존재한다.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지혜를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살아가는 일이 행복한 것이다. 그들의 지혜는 결국 죽음 앞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용기가 있다면, 또한 죽음과 마주 보고 싶다면 나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죽음이 의미가 있기를 소망한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를 그 자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생을 살아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생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린다. 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잘 살아내면 좋겠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하며 보내는 여정이기를 바라본다. 우리 모두는 그저 평범한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누구나 대단한 존재여야만 한다. 그 순간은 분명 대단한 순간이다. 삶과 죽음은 그 어떤 순간도 찬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단하지 않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는 인생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순간에 대해 한 마디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저 오늘을 통과하는 생을 살아가는 존재니까. 당신의 오늘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생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은 그 이름 때문에 분명 대단한 존재다. 우리는 종종 죽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특별하게 소중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고 살다가도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죽음이란 단어는 축복의 연속에 어울리니까. 우리가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은 절망의 연속이다. 죽음은 또 다른 생의 한 줄기 빛이기에,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순간이, 이 생의 순간이 영원하기를 속으로 빌어본다. 죽음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삶은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나는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순간은 어제의 나와는 다르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다시 오더라도, 나는 특별한 순간을 보낸다.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니,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생을 살아가자는 것은 그런 마음일지도 모른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음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삶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삶을 살아낸다는 게 힘든 일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생의 마지막 순간의 내가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생은 한순간이고, 죽음은 그렇지 않다. 죽음은 그저 삶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게 큰 공포이자 설렘이며,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한 방법이다. 지금 나는 이렇게 글을 쓰며 죽음을 바라보므로, 나는 이 시간을 온전히 살아 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은 이미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죽음 이후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과거만이 남아있다. 나는 오늘을 살아내며 어제의 나를 이어왔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저 죽으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배워나가면 된다. 죽음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지만 결국 배움이란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시작했고, 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이며,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삶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삶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니,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삶을 배워나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테다. 우리는 죽어 사라진다고 해서 삶에 대해 무언가 알지 못한다. 어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할 기회는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자신의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앞에서도 당당하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순간들을 이야기 해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당당하게 내 선택과 행동,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그 자리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을 나는 상상한다.

죽음은 끝남과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어서 생의 시간 동안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삶의 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신비의 세상. 그 세계가 궁금하지 않은가? 내가 나로, 내가 스스로, 남들에게 괜찮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은 죽음 이후에나 가질 수 있으니까. 죽음이 나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대할 수는 없어도 잘 죽었다고 생각될 수는 있으니까.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털고 떠나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죽음 앞에 선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삶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죽고자 한다.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누군가의 죽음은, 죽음 자체는 아주 단순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 누군가의 죽음은 다른 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한다. 삶의 한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가!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죽음은 삶을 더욱 충만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죽음의 과정은 삶의 과정이기도하다. 죽음은 죽음 이전과 이후에 또 다른 완성태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용기를 갖고,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때로는 용기를 다한 후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한다. 죽음은 삶에서는 완성이지만,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죽음이 삶을 대신할 수 없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사는 동안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려는 시도다. 그렇게 삶의 의미들은 서로를 의미 있게 더해준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순간으로, 한 발짝 물러나 삶과 마주 봄으로써,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마주하려는 용기를 갖고, 죽음을 맞는다. 죽음이 삶을 대신할 수 없듯이 죽음이 삶을 대신할 수 없다. 죽음 이전과 이후에 또 다른 완성태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 내가 지나온 삶의 어느 시점도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도 죽음도 완성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그때그때 삶에 충실했던 다른 이들이,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 찬란한 삶을 살았고, 누군가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누군가는 죽음 이후의 삶도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다. 죽음은 생의 완성이다. 그렇다면, 죽음을 마주하기는 어려울까? 사실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는 자주 죽음을 마주한다. 그럼에도 생의 두려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다. 죽음보다 어려운 것은 생의 완성일 것이다. 삶보다 죽음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생에는 행복만이 있지 않은데, 그 행복이 꼭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착각으로 괴로워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는 것을 주저하고,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죽음을 피하려 한다.

죽음의 순간에 마주하고자 하면,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죽음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용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 삶에만 충실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담대한 죽음을 갖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죽음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중요하다. 그것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힘을 선물할 수 있을 때이다.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사랑은 생명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은 죽을 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사랑도 사랑을 잃고 사는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에 타인에게 사랑을 선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죽음이 죽음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삶의 의미이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삶은 죽음을 향해 성장하고 죽으면 함께 간다. 삶은 죽음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계속된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을 향해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의 죽음을 마주하여 내 삶을 이어갈 줄 알 때 죽음은 나의 삶의 일부가 된다. 죽음이 나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 죽음이 나의 삶으로 완성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다면, 또 그것을 삶의 시작과 끝에 하나의 과정으로 제시한다면 삶은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죽음과 삶이 하나로 느껴지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죽음의 과정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어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를 의식하고 또 그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삶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됨을, 나에게서는 죽음이 삶의 의미가 되어 아름답고 또 아름다울 것임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조금씩 성숙할 수 있다.

누군가에겐 큰 일로 보일 수 있으나 내가 보았을 때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죽음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온다.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하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의식할 때까지는 다가오지 않는다. 또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언제, 어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죽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죽음과 가까운 사람이 된 것이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 된다.

죽음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다. 죽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삶 또한 죽음을 위해서 존재한다. 죽음은, 삶은, 모두 유한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함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죽음을 마주하고 또 그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삶의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된다. 삶의 주체로 산다는 사실은 어쩌면 죽음의 주체로 산다는 점과 맞닿을 수 있다.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진지함이 수반된다. 진지하다는 말 그대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죽음의 주체로 살아간다는 말은 죽음을 의식한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주체로 살아간다면 삶은 죽음에 닿고 죽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수렴된다.

내 죽음은, 내가 의식하고 살았던 마지막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내 인생 최고로 용감한 죽음이 될 것이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가를 생각한다. 내가 기억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죽음이다. 가장 찬란했던 죽음이며, 내 인생 최고로 용감한 죽음이다. 그 마지막이 초라하다면



정말 초라할만큼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최선이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든 것 같은 죽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결국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며 시작이다. 죽음은 내 삶의 마지막 여정이고 내 삶의 마지막 과정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삶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삶의 최종 종착역이며 시작인 죽음을 함께 바라보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태도이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순간에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 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다. 그저 살아있는 상태에 머물기 충분하다.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하고, 그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내게 된다. 그것은 아름다운 죽음이다.

삶은 죽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끝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한 우리의 행동들은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증명하게 된다. 죽음은 우리 삶의 종착역이다. 담대한 죽음은 나의 죽음을 통해 내 삶을 더 즐겁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자 기쁨이 된다. 그들의 삶이 나와 조금 다르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그들도 이 삶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며 나의 죽음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죽음이 나의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나는 담대한 용기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낸 죽음이 되고 싶기에... 그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무엇을 남길까. 내 인생을 관통하는 커다란 의미는 무엇일까. 가족들, 오랜 인연들, 나를 아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 내가 살며 느꼈던 소소한 기쁨, 아픔, 고민, 슬픔 등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큰 영향력의 죽음이겠다. 죽음은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한다. 나의 죽음이 다른 이에게 인생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죽음은 여행을 할 나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주며, 다른 여행을 준비하는 나를 위한 준비가 된다. 담대한 죽음과 담대한 여행은 내 삶의 의미가 되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아름다운 삶과 사랑에 대해 전해주고 싶다.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한다. 언젠가 죽는 것은 두렵지만 죽음이 여행을 준비한다는 것을 느끼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가치 있고 멋진 일이 없을 것이다. 나에겐 죽음이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가 되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매일 죽음과 함께 여행을 할 테니 여행이 지루해진다거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지루하다 느껴진다면 나의 죽음이 나의 여행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열심히 나는, 삶을 산다. 삶에 대한 후회는 없다. 모든 순간들이 후회되고 아팠던 순간들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주니 말이다. 모든 고통이 지나간 후에는 나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확신할 수 있으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경험으로 말아야.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의 죽음이 나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죽음은, 나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죽음은 분명 나에겐 아름다운 것이 맞다. 오늘도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나의 죽음이 나의 삶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다. 나의 삶에 죽음은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삶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삶을, 죽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뿐이다. 나는 죽음 앞에서는 담대해질 것이며, 나는 삶 앞에서 담대할 것이다.

죽음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생명이 끝나는 곳에서 얻게 되는 아름다움, 그것이 아름다움일까.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름다움에서 그 절정에 오르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곧 아름다운 삶이니까. 죽음은 슬픈 일이라고. 세상과 작별하는 일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죽음을, 인간의 삶이 아름다운 것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되지 못했다.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인간의 삶이 아름다운 것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죽음 앞에서 초연해져야 한다. 세상이 끝나가는 순간까지, 삶은 죽음을, 우리는, 죽음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나는 죽음을 사랑한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나를 잇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죽음은 죽음을 잇는 것에서 출발하고 죽음을 사랑할 때 찾아온다.

나의 죽음은 아름답다. 삶을 아름답게 사랑할 때 나의 죽음은 꽃이 될 것이다. 꽃씨를 뿌리고 물을 준 후 다시 덮어주어야 제대로 뿌리가 내릴 수 있듯 나는 나의 죽음을 아름답게 덮어줄 것이다. 내가 죽음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 죽음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죽음은 꽃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나는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뿌린 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나를 통해서 죽음을 생각했으며 생각이 있는 삶이란 죽음의 방향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생명보다도 죽음의 방향에서 더 많은 생명과 더 넓게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죽음은 생명의 삶에 대한 보답이었다. 죽음과 함께 살아온 삶이란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삶이란 죽음 뒤에 이어지는 삶이 인간의 삶이다. 삶은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여정이다. 죽음은 생명과 함께 생명으로 흘러가는 생명이다. 생명과 생명의 연결이다. 생명 자체,

생명을 낳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따라 삶과 죽음을 사는 아름다움에 있다. 우리는 흔히 생명이 소중하기에 인간이 인간의 삶을 연장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본능으로 존중하지만, 죽음을 향한 인간의 움직임은 결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특징이 죽음과 허무라고 한다면 삶을 향한 움직임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갖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특징이다. 그러나 죽음은 한계이고 한계를 벗어난 삶은 허무이다. 인간 존재의 한계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의 의미 앞에서 우리는 허무를 극복함으로써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허무와 허무를 극복하게 해주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삶의 허무와 죽음의 허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써 살아있는 행위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죽음은 매일매일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죽음은 언제나 삶의 반대편에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삶을 걸어가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으로 만들어졌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죽음과의 관계를 전제로 생각해.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가 설계하는 것. 지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 오늘이 남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후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죽음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커다란 개념이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하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된다.

만약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마음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다면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남은 여정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그 한 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오늘을 열심히 산 다음에는 또 다른 내일에 충실하고 싶다. 죽음과의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남이 안겨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의 것이다. 살다가 죽을 거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죽음과 당당하게 마주 서고 담대한 죽음으로 용기를 더하라. 죽어가는 자들도 용기 있고 불꽃을 내뿜는 불꽃도 용감하다. 삶으로 증명하라.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가장 충실하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나는 왜 죽고 싶나?’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다. ‘살고 싶다’고, ‘죽고 싶다’곤, ‘지금으로서는 살고 싶다’,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인지, 그것을 굳이 결정해야 한다면, 당신도 나도 이렇게 답해 보면 어떨까. 당장 죽어도, 한 번은 후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인생사의 정답은 없지만 지금부터 내가 살아온 과정을 찬찬히 돌아보면 나는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에 더 가까우며, 그렇게 나는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 가지 다짐한다. 담대하게 죽음을 마주 서 보자고. 그리고 당당하게 마주 서 보자고. 나는 늘 그렇듯이 '나'를 믿었다. '나는 존재함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자.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나 삶은 처음이기에 모든 것들은 두렵다. '처음 시작'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는 시작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과정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 나를 믿자, 그리고 당당해 지자. 불꽃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내가 불꽃을 향해 한 걸음 디딜 수 있으면 계속 거기 있고 멈추지 않으면 그 불꽃이 결국 타오를 것이다.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도 그 불꽃을 향해 가야 한다.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고 나 자신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덜 무섭고, 덜 힘들고, 죽을 수 있고, 조금만 더 힘낼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조금씩 노력했다는 사실만이 기억해줬음 좋겠다. 내가 조금씩 용기였다는 사실만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을까, 그것이 남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서 하는 게 있을까. 삶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삶은 죽음과도 같다. 결국에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 자신이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고 있다. 무언에 홀린 듯 살고 있다.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의미'를 잊을 정도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 두려워서, 나 같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까 봐 두렵다. 하지만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똑같아서 두렵다. 나를 잃고 싶지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나의 삶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 큰 축복이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 죽음을 향해 달린다. 살 만큼 살고, 죽는 것이 맞다. 죽어야 할 때는 죽으면 되고, 살만큼 벌었으면 더 이상 미련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죽음 이후에 할 것들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살아도 되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이 살면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도 축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온전히 이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언감생심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꿈도 못 꾸다. 그렇다면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앞에서 초연한 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또 하나의 소망이자 소망 중 하나다.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삶이고, 저것도 삶인 것'이라고 인정하며 말이다.

삶과 죽음을 구분해 보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진다. 죽음은 나의 일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나를 죽더라도 나의 삶은 나에게 있어 의미있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삶에 미련이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그렇기에 죽음은 삶에게 있어 축복이며, 삶을 더 운택하게 만들어주는 거름인 셈이다. 나 또한 내가 죽음에 가까워짐을 마주할 때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그럴 땐 담담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본다. 내가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린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지 않고 있는 일을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나에 상관없이, 삶의 마지막까지 살아 있는 것을 사랑하길 바라면서 말이다.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에 걸맞게 해야하는 일들이 많다는 뜻이 된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비로소 죽음에 가까워진다. 모든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다. 죽음에 가까워지니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고민하고,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건 죽음이 있기에 가능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죽음을 마주한 후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시작과 마주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 기회는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 기회는 더 이상 죽음을 마주하며 살지 못한다. 이제 그 삶은 내 삶이며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 다시 태어났기에 새롭게 시작된다. 죽음은 삶의 축복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삶을 더 운택하게 만드는 거름이기도 하다. 삶을 좀 먹는 거머리가 돼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영양분 같은 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죽음이 내게 주는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더 이상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발견한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나,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소멸을 초월한 나, 내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죽음을 초월한 내가 삶을 다시 살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시간들 속에서 조금 더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다.